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019년5월07일 | 조사역(G3) 김예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인구 200.96백만명 (2018)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연방공화국)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온건 이슬람 
GDP 3,068.97억 달러 (2018 ^e) 	1인당GDP 1,527.16달러 (2018 ^e) 	통화단위 Pakistani Rupee(PR) 	환율(\$기준) 121.82 (2018 ^e)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으며,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 경제는 석유 산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적이며, 불안정한 치안과 인프라 부족, 정부의 군사비 지출 등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진함. 그러나 향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 허브 도약 또는 미개발된 다양한 천연 자원 개발의 성장 잠재력을 가졌음.
- IMF의 잦은 수혜국으로 총 20번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2013-16년 중 약정금 전액(67억 달러)을 인출하며 거시경제 지표를 크게 개선시켰음.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며 중국 은행들에 대규모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누적되어 현재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바, 우방국과 IMF의 신규 금융 지원이 긴히 요구되는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3. 11. 7 수교 (북한과는 1972. 11. 19)

주요협정 무역협정(68.10), 해운협정(84.3), 문화협정(85.5), 과학·기술협력협정(85.5), 경제과학기술 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85.5), 사증면제협정(85.5), 이중과세방지협정(87.4), 투자보장협정(88.5), 항공협정(96.7), 무상원조 기본협정(12.12), 유상원조 기본협정(15.10)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828,672	1,006,764	1,018,001	직물, 쌀, 가죽제품, 스포츠용품, 화학제품, 공산품
수 입	283,010	317,443	379,953	석유제품, 기계류, 플라스틱류, 운송장비

해외직접투자 현황(2018년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54건 · 241,76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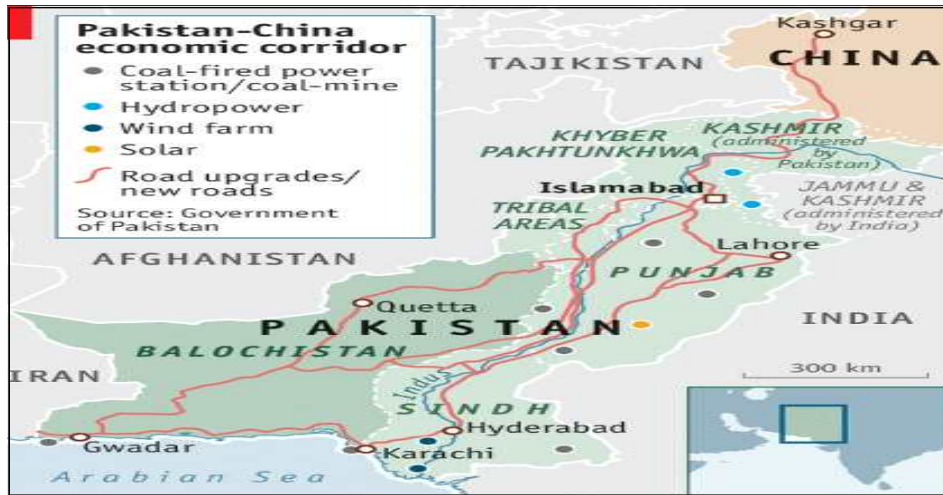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1	4.1	4.6	5.4	5.2
소비자물가상승률	8.6	4.5	2.9	4.1	3.9
재정수지/GDP	-4.9	-5.3	-4.4	-5.8	-6.5

자료: IMF, EIU

CPEC, 5%대 경제성장 견인하며 파키스탄 경제 역사상 최대의 성장동력 과시

- 파키스탄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력·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5.4%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2018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5.2%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국적 회계컨설팅업체 Deloitte는 CPEC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200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GDP 2.5%p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으며, 프로젝트 성공시 경제 요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녔던 파키스탄이 국제 물류 허브로 도약하고 현재 열악한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현재 석탄·수력 등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며, 우선단계로 추진 중인 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2021년 이전에 파키스탄의 전력 공급 부족분이 총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임.
- 한편, 파키스탄 정부의 부정부패와 공공사업 경험 부족, 지역 주민의 반발,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테러 문제 등은 동 사업 수행상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 의존도 심화 및 중국 차관 상환 부담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사업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 출처 : The Economist

2015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를 육로로 연결하는 도로·발전소 건설 및 경제특구(SEZ) 조성을 포함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임. 현재 프로젝트의 우선단계사업(early-harvest projects) 진행 중이며, 동 단계에 약 460억 달러가 기 투자되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안정화 후 소폭 재상승하여 2018년 3.9% 기록

- 원자재 국제가격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10%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수입가격 안정화, IMF 프로그램 이행* 등으로 2016년 2.6%까지 안정화되었음. 그러나 2016년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9%로 소폭 반등함.

* 파키스탄은 2013-16년 중 IMF 구제금융 정책조건을 이행하여 약정액을 전액(67억 달러) 인출하였으며, 약정금 대출 조건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포함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구조로 재정적자/GDP 비중 6.5%까지 확대

- 파키스탄 정부는 예산의 대부분을 사회 보조금(subsidy)*, 외채 상환, 군사 비용에 지출하는데 반해 세금징수 환경이 열악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품목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겪고 있음.

* 비료 공급, 전력 요금, 빈곤층을 위한 저가식품 생산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 IMF 구제금융 차관 및 연합국지원기금(CSP)* 수취로 재정수지 적자가 2013년 GDP의 8.4%에서 2016년 4.4%까지 축소되었으나, 2016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적자가 계속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GDP의 6.5%까지 확대되었음.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참여 동맹국에 제공하는 지원 기금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3,642	-2,776	-7,094	-16,251	-18,250
경상수지/GDP	-1.5	-1.0	-2.5	-5.3	-5.8
상 품 수 지	-17,898	-17,108	-20,867	-30,055	-31,920
상 품 수 출	24,777	22,707	21,820	23,203	24,834
상 품 수 입	42,675	39,815	42,687	53,258	56,754
외 환 보 유 액	11,053	17,157	19,016	15,203	8,763
총 외 채	65,393	65,727	73,708	83,625	93,921
총외채잔액/GDP	26.8	24.3	26.5	27.4	30.1
D.S.R.	25.6	19.2	19.5	23.3	18.6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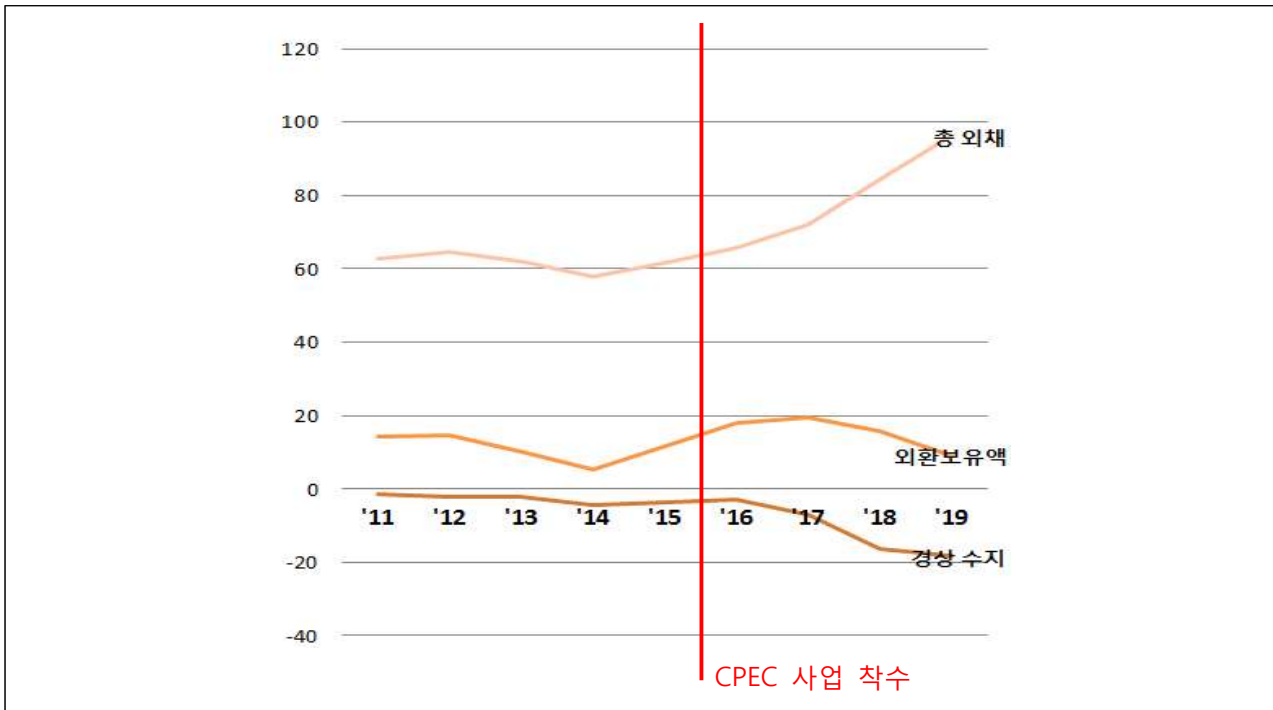
섬유·의류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 점유,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 흑자의 중요성이 큼

- 파키스탄은 솜, 잠옷, 카페트 등의 섬유·의류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쌀, 생선, 가축, 과일 등 농수산물도 활발히 수출하고 있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유럽이며 UAE, 아프가니스탄, 홍콩도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대상국임.
- 민간소비는 대부분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가 흑자를 기록함.
 - * 해외근로자 송금은 GDP 대비 약 6%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지역 비중이 60% 이상
- 다만,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쌀, 가축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하는 교역 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 왔음.
- 발루치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금, 구리 등 광물자원이 세계적 수준으로 매장되어있다고 추정되나, 잦은 테러와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아직 주요 수출 품목은 아님.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 악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 EIU

2013-16년 : 외환보유고 누적기

- 2013년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중이 90%를 기록하는 등 외환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던 파키스탄은 2013년 9월 67억 달러 규모의 IMF 차관 도입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이후 CPEC 사업 관련 중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에 힘입어 2013-16년 기간 중 외환보유고가 연평균 약 35%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2016년 이후 : 자본재 수입 증가로 외환보유고 급감

- CPEC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자본재를 수입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함. 또한, 사업 비용을 위한 차입 증가로 외채가 증가하여 외채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됨.

※ 경상수지 적자 : 71억 달러 (2016) → 183억 달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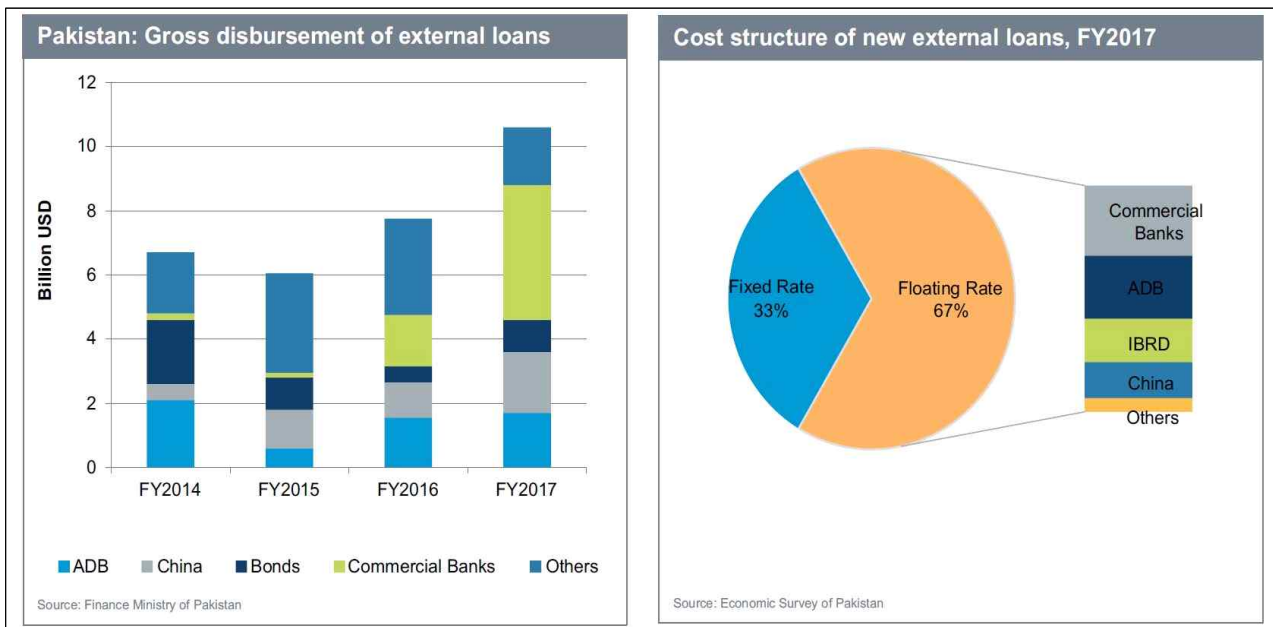
※ 외환보유고 : 190억 달러 (2016) → 88억 달러 (2018)

* 출처 : IMF BOPS

CPEC의 덫 : 대출 급증, 불균형한 자본재 수입 구조로 외채상환능력 심각하게 악화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으로 인한 자금유출을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의 자금유입으로 충당하여 경상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파키스탄과 중국도 당초 계획에는 프로젝트 비용을 중국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제로금리 채권, 중국계 FDI, 중국계 대출을 적절히 섞어 균형적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중국계 FDI가 본 사업 착수 후 5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2018년 중 중국으로부터 FDI 유입액은 약 14억 달러) 불구하고 프로젝트 자본재 수입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외환보유액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또한, 파키스탄은 CPEC 사업 추진 비용을 중국개발은행(CDB),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은행(BOC) 등 중국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외채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은행 차입금(Commercial Bank) 절반 이상이 중국계 은행 대출임.

<파키스탄 부채 구조>



※ 출처 : IHS Markit

- 또한, 중국 차관의 금리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아 파키스탄의 낮은 신용도를 고려할 때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국제신용평가사는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파리클럽 회원국은 동국의 채무상환능력을 주요 의제로 점검하는 등 국제사회의 파키스탄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음.

※ 총외채 : 657억 달러 (2015) → 940억 달러 (2018) *출처 : OECD CRAM

※ 2018년 말 기준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83억 달러 *출처 : EIU

구조적취약성

열악한 인프라와 테러 위험 등 불안정한 치안이 경제성장 저해요소

- 파키스탄은 테러 위험과 재정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진하며, 열악한 교통·전력·통신 환경은 주요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자 섬유 및 농수산물 위주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본격 발전하는 데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함.
 - 총 에너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주요 경제 중심지인 카라치의 경우에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보급된 지역마저도 수도관 노후화로 수도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음. 또한, 일반가정과 공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9에서 작년보다 11위 상승한 136위(190개 국가 중)를 기록함. 이는 창업, 자산 등록, 파산 절차 관련 환경 등이 개선된 점이 반영된 것이나, 경제 활동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하위 수준임.
- 국경 지역에서의 잦은 테러 발생은 치안을 불안정하게 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며, 군부의 테러 조직 지원 의혹은 각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관련 규제를 초래하고 있음.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올해 6월 파키스탄 자금세탁 방지 관련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며, 낮은 점수를 받을시 각종 국제금융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인구규모는 강점이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문화적 관념 부족

- 파키스탄 내 소수민족 혹은 종교분파 출신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고, 교육 등 인적자본 활용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부족하여 세계 6위 수준의 풍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인력확보가 요원함.
 -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자인 Atif Mian이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EAC) 위원으로 선정된 후 이슬람 소수 분파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요 분파의 반대 선동에 의해 제명되는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정책에서 출신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수출입 구조

-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유 등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하여,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수출경쟁력도 동시에 저하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민간 소비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크게 의존하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중 60%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으로부터 유입되어 GCC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로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수 있는 구조임.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성장잠재력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물류 허브로의 도약 기대

- CPEC 프로젝트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Aramco와 파키스탄은 과다르 항만 지역에 100억 달러 규모 정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 중임.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인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Pipeline Project)* 사업 추진을 위해 4개국은 2014년 SPC 설립 및 ADB 자금을 확보하였음. 현재 상업적 이슈 및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문제로 건설이 지연 중이나, 2019년 3월 4개국이 모여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완공시(2022년 완공 계획) 에너지 안보 제고 및 가스관 통과료 수익 창출 등이 예상됨.
 - *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를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1,800km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
- 이와 같이 주변국들은 파키스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인프라 사업 발굴에 적극적이며,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제조업 성장, 서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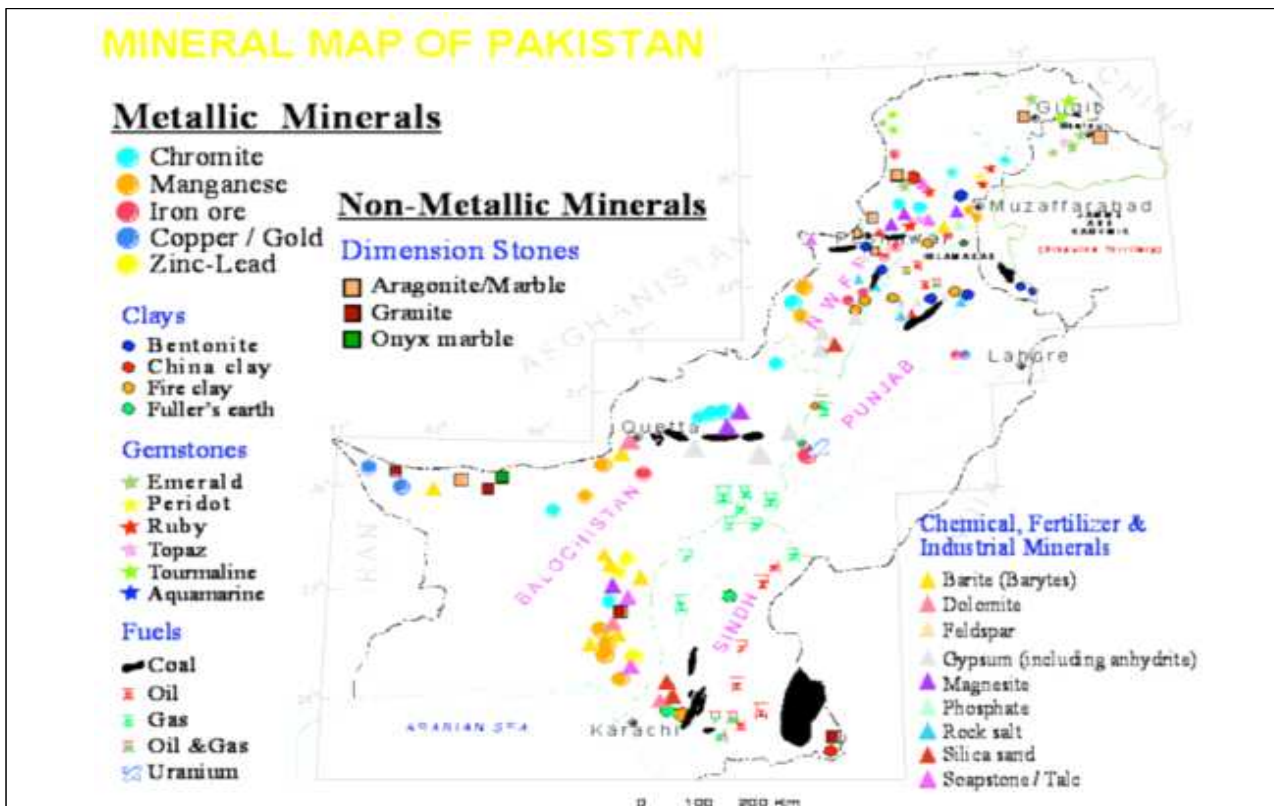
<TAPI 프로젝트 지도>



풍부한 인구와 부존자원

- 파키스탄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세계 6위의 인구대국이며 15~54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 구매력 증대와 민간소비 증가 시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석탄, 천연가스,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치안 문제 해결, 인프라 및 기술 발전 시 자원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발루치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금, 석탄, 구리,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 내 최대 광산인 Reko Diq 광산에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금과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됨. 또한, 신드 주 Thar 사막에서 석탄 광산이 발견되면서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량 매장 국가로 등극함.
- 다만, 분리주의 및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가 활발하여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발루치스탄 및 북서부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개발이 미진하여 가스, 석유,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파키스탄 광물자원 지도>



※ 출처 : 파키스탄 지리 정보부(GSP)

정책성과

IMF 차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2013-16년)

- 파키스탄은 2013년 IMF 신용협약(EFF*) 프로그램 도입 후 IMF의 다양한 정책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년 9월 3년간 총 약정액인 67억 달러를 모두 인출함.
 - * Extended Fund Facility: 일시적인 외환부족시 지원하는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과는 달리 구조적인 외환부족 문제 발생시 지원하며, 차관 지원을 위한 정책권고안 또는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
- IMF는 2016년 9월 최종 점검에서 파키스탄이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여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대외 경제 취약성 완화,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파키스탄은 1958년 이후 지금까지 20번이나 IMF의 자금지원 약정을 받았으나 정책권고를 이행하지 못해 지원액을 전액 수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약정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번이며, 동 EFF 이전인 2008년 지원을 약정받은 7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또한 정책조건 미이행으로 68%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한 채 종료됨.

<2013-16년 IMF EFF 프로그램 성과 및 이후 상황>

<주요 성과지표 추이>			
	2013 (EFF 도입 연도)	2016 (EFF 종료 연도)	2018
경제성장률	3.7%	4.6%	5.2%
소비자물가상승률	7.4%	2.9%	3.9%
외환보유액	51억 달러	190억 달러	88억 달러

※ 2013-16년 IMF의 파키스탄 지원조건

- (경제성장률) 5% 달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6~7%대로 억제
- (기타) 외환보유고 확충, 세제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 2018년 파키스탄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CPEC 사업 추진으로 5% 달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원재가 국제가격 및 미국 금리 상승 여파로 소폭 상승
- (외환보유액) CPEC 자본재 수입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급감

- 파키스탄은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을 위한 외환보유고 마련과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구조 해결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가 과제로 남아있음.

IMF 이후 다시 찾아온 위기, IMF 신규 차관 도입 추진 중

- 무리한 CPEC 추진으로 외환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은 2018년 10월 IMF에 새로운 차관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음. 또한, 세계은행에도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IMF는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이 2019년 4월 초 미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적 합의 (agreement in principle)를 이루었다고 발표함. IMF는 4월 중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올해 상반기 내 최종 타결 여부와 지원 조건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한편, 2019. 3월 개최된 파리클럽 회의에서 IMF는 파키스탄 정부 앞 환율 유연성 증대, 외환 개입 제한, 긴축 통화 정책, 가스·전력 요금 인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IMF가 중국 CPEC 관련 상세 현황 및 채무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루피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과열 방지 노력

- 파키스탄 정부는 2018년 중반부터 루피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있음. 중앙은행(SBP)은 2018년 1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0% 인상하였으며, 당분간 기준금리 상향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향후 전망, Vision 2025 및 IMF 요구 정책 이행 예상

-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발표한 Vision 2025 국가발전 로드맵은 인적자원 및 사회자본 개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거버넌스 혁신 및 공공 부문 현대화, 에너지·수자원·식량안보 개선, 민간 부문 성장 및 기업가 정신 확산, 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로 발전, 도로 인프라 현대화 및 지역연계 강화의 총 7개 중점 분야를 통해 파키스탄을 2025년 이전에 세계 25위권의 경제로 도약시키려는 정책 목표임.
- 특히,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공기업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력요금 인상을 추진 중임.

정치동향

2018년 7월 선거 결과 PTI 임란 칸 총리 승리, 2023년까지 안정적인 정권 유지 전망

- 2018년 7월 선거에서 문민정부 간 정권교체(PML→PTI)가 이루어졌으나, 선거 과정에서 군부가 친군부 성향인 임란 칸 총리 및 PTI을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 다만, 주요 야당인 PML 등의 이전 수장들이 현재 탈세, 뇌물 등으로 수사* 중인 상황 및 군부와 집권당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현 정부는 만기인 2023년까지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4월 일명 '파나마 문서(Panama Paper)'가 공개되면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PML 소속)의 해외 자산 은닉 및 탈세 혐의가 밝혀져 2017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리직에서 파면됨.

<파키스탄 주요 정당 요약>

정당	정책 노선	수장	기타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친군부, 친이슬람세력, 반서방, 반인도	임란 칸	- 2018년 7월 이후 현 집권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	반군부, 친서방, 친인도	쉐바즈 세리프	- 지난 10년간 집권 - 부정 부패 의혹

- 1947년 독립 이후 파키스탄은 문민정부와 군부가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하였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문민정부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부가 국제관계 및 안보 분야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짐.
- 파키스탄 군부는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슬람 이념 하의 국가 통합을 강조하여 옴. 동 군부는 냉전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 소련 공산세력에 맞서는 미군과 이슬람 반군들 앞 무기를 제공하는 데 중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군부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탈레반 세력을 성장시키는 배경이 되었음. 이후, 인도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이슬람 테러 활동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등 테러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혹이 보편적임.
- 2018년 9월 Arif Alvi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5년임. 파키스탄은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며, 총리가 대통령을 선임하는 정치 구조임. 총리는 경제, 정치, 외교, 군사(핵미사일 관리 포함)까지 총괄하는 동국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이며, 대통령의 경우 2010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의 의회 및 총리 해임권 삭제 등 정치적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하게 되었음.

사회동향

다양한 분쟁 및 테러 발발 등으로 사회불안 지속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수차례 군사적 쿠데타가 발생했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 종파 간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파키스탄 내 주요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탈레반(TTP: Tehrik-i-Taliban Pakistan)의 무장투쟁,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주의자 테러, 경제중심지인 카라치 지역의 갠단·종파 간 테러 폭력사태, 편잡 주와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 인도 테러로 구분할 수 있음.
- 파키스탄 정부가 2015년 페사와르 군인공립학교 테러(2014. 12월)를 계기로 2016년 1월 수립한 대 테러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행한 이후 테러 건수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파키스탄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인 테러 및 종교·지역 패권 문제 등으로 인한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민주주의 정착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하위 수준

- 파키스탄은 소수 민족·종파 출신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고, 군부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강하며, 민주주의 시민단체에 대한 군부의 억압이 심한 등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 남녀평등 등 삶의 질에 관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2018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총 188개국 중 150위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국제관계

인도와는 오랜 갈등 관계이나,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적 마찰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옴.
 - ※ (카슈미르 분쟁) 과거 무굴 제국에 함께 속해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카슈미르 지역 주민 다수가 이슬람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신자인 이 지역 토후국 왕(하리 싱)의 결정에 따라 인도로 귀속된 이후 인도로 편입된 이슬람교도들의 폭동으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2월,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 내에서 인도 경찰 40여명이 사망한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파키스탄 영토 내 극단주의 조직 자이시-이-모하마드(JeM) 테러 기지를 폭격하였음. 다음날 파키스탄이 인도 국경을 넘어 공중전이 발생하여 인도 공군기 2대 및 파키스탄 1대가 각각 피격되며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3월 인도 공군 포로 송환 및 칸 총리의 화해 제스처로 국면이 진정이 마련됨.
- 2018년 11월, 인도 시크교 신도들이 파키스탄 내 종교 성지인 편잡 주 카타푸르(Kartapur)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카타푸르 회랑 (Katarpur Corridor)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지연 중이며, 동 프로젝트 자체로 카슈미르 지역 갈등 해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양국관계 개선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는 의견임.
-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게릴라성 테러와 무력 충돌은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이며, 양국 모두 핵보유국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재정 및 군사적 도움을 위해 전략적 우호관계 유지

-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CPEC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노선에서 친중국 노선으로 외교 중심축을 옮긴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또한 과거 카슈미르 영토 분쟁을 인도와 파키스탄 양자 간의 문제로 간주해왔으나, CPEC 사업이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파키스탄의 영유권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여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또한, 미국-인도의 원자력 협력에 대응해 중국 파키스탄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도-미국 vs 파키스탄-중국'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임.
 - IMF의 요구에 따라 CPEC 관련 내부 정보를 IMF와 공유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경제협력, 反 미국-인도 외교협력 등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전략적 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한 외교관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한편,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외국민 송금 및 투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상부상조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협력·갈등 반복 후 최근 탈레반과의 협상을 위해 손을 내미는 국면

- 파키스탄의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이 미국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탈레반 등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작전에 협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과거가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친인도적 정책기조를 유지하였고, 서남아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을 '아프간 테러단체의 은신처'로 지칭하며 동반자 관계 폐기, 안보 원조 지원 삭감 등 한동안 양국 관계가 냉각되었음.
-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해 옴.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군부 앞 협조를 요청하는 등 파키스탄은 역내 핵보유국이자 군사·외교 강국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9월 폼페이오 장관과 임란 칸 총리가 만나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를 위한 협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파키스탄에 협력을 요청하는 자세를 내비침.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관계에서 힘 지녀

- 파키스탄은 전 세계 총 9개 핵보유국 중 한 국가로,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인정하지 않는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라는 군사적 강점만으로써 군사·외교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제고하고 있는 국가임.
- 냉전 이후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면서 핵보유국인 인도를 대적하기 위해 국제사회 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작하여 1998년 핵실험 이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알려지게 됨.

※ 핵보유 9개국

- NPT 인정 핵보유국 :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 NPT 비인정 핵보유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외채상환태도

짚은 채무재조정과 ECA 금융 연체 경험이 있으나, 현재 연체는 없음

-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6차례(1972, 1974, 1981, 1999, 2001 1월 및 12월)의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며, 21차례의 IMF 구제금융 수혜를 받는 등 만성적인 외채상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2018년 6월 말 기준 채무재조정 대상 원리금은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임.

- 2018년 6월말 기준 ECA 앞 원리금 잔액은 23.8억 달러(단기 8억 및 중장기 15억)이며 원금 및 이자 연체는 없음*.

* 1997. 9. 30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신용기산일, cutoff date) 이후 발생한 채무 잔액 기준

- 2018년 파키스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0.6%, 총외채 중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8.3%이며,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외채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이 304.9%,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8.6%를 기록하고 있어 외채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8년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월평균수입액의 1.4개월분으로 IMF 최소 권고기준인 3개월을 하회

우방국의 지원 및 IMF 구제금융으로 외환위기 모면 예상

- 2019년 4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로부터 총 8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확보하여 이중 50억 달러가 기 지원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약 2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아 외환보유고 고갈 우려가 완화되었음. 또한, 2019. 4. 15일자로 IMF와의 구제금융 관련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는 바,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타결이 전망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19.02)	7등급(2018.06)
Moody's	B3 (2018.06)	B3 (2017.07)
Fitch	B- (2018.12)	B (2017.02)

외환보유고 감소로 단기적 외채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를 고려하여 신용등급 하향 조정

- 파키스탄은 2016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결 이후 CPEC 추진을 위해 중국 자금을 도입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세수 부족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대외지급력의 악화 상황을 감안하여 Fitch는 최근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였음.

- 파키스탄은 풍부한 자원, 인구, 지리적 이점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잦은 테러와 인도와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 등 불안한 치안과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사업환경이 열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가 어려운 국가로 여겨져 옴.
-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군사 강국으로 탈레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 미국,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인도 vs 중국-파키스탄'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IMF의 잦은 수혜국으로 지금까지 총 20번의 차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3-16년 중 IMF 정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약정액을 전액(67억 달러) 인출하여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음. 2018년에는 CPEC 추진으로 5.8%의 경제성장과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로 소폭 상승한 4.9%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그러나 중국 일대일로(CPE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자본재 수입과 차입이 증가하여 외환위기를 겪게 되어 현재 신규 IMF 차관 도입을 추진 중임.
- 파키스탄은 현재 외환 위기를 겪고 있으나, 우방국의 지원으로 단기적 외환보유고를 충당하여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IMF 협상이 올 상반기 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또한, 2018년 선거에서 친군부 정권이 집권하여 정책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중으로 향후 생산성 제고, 제조업 성장,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이에 향후 외환위기 극복 여부와 인프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GDP 규모(억 달러)		3,126	26,110	901	2,863
1인당 GDP(달러)		1,555	1,933	4,153	1,737
경제성장률(%)		5.23	7.09	3.75	7.35
소비자물가상승률(%)		3.9	3.6	4.9	6.0
재정수지/GDP(%)		-6.5	-6.9	-4.6	-4.0
경상수지/GDP(%)		-5.8	-2.0	-3.0	-2.4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1.4	7.7	2.6	5.8
D.S.R(%)		18.56	9.78	21.34	6.56
총외채잔액/GDP(%)		30.0	18.7	61.2	16.8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89.3	24.8	105.3	27.8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OECD	7	3	6	5
	Moody's	B3	Baa2	B2	Ba3
	Fitch	B-	BBB-	B	BB-
	수은	D2	B2	D1	C3